

데이비드 C. 뱅크스 교육감으로부터의 뉴스레터



기후변화 대처 캠페인

친애하는 뉴욕 주민 여러분,

저는 학생들의 밝은 시작과 힘찬 미래를 자주 언급하곤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계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기후 변화라는 존재 자체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뉴욕시 공립학교 최초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의 날](#) 캠페인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일에 걸쳐 날짜 별로 각각의 주제를 정하여 지속가능성 및 우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한 활동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 12월 6일: 에너지
- 2월 7일: 쓰레기
- 4월 17일: 보건, 웰니스 및 녹색 공간
- 6월 12일: 물

이 캠페인이 실시되는 날에는 각 학교에서 이러한 주제를 심도 있게 알아보고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배운 후, 학교 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담당실(Office of Energy and Sustainability)에서는 이번 달에 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종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총 750명에 달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각자의 학교 커뮤니티에 맞는 기후와 관련된 액티비티와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그 내용은 "우리 동네 에너지 탐사" 견학에서부터 플라스틱이 없는 런치데이, 빗물 활용 텃밭에서 정수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기후 교육과 실천활동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뉴욕시 청소국의 [2017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 학교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51%가 퇴비로 사용될 수 있고 35%가 재활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게 있어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보호하고 더욱 푸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 시스템 전체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기회,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81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학교 건물에 설치한 우리 뉴욕시 공립 학교들은 이미 뉴욕시의 태양 에너지 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어 관련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학년도 말까지 모든 뉴욕시 공립 학교에 도로변 퇴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 최대의 학교 퇴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저는 NYCPS 커뮤니티 전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바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 학교에 연락하여 12월 6일에 있을 첫 번째 실천의 날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웹페이지](#)에서 나이에 맞게 구성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아동용 도서 추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기후변화 실천의 날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보고 있으며,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서 학생들은 큰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높이 날아 봅시다.

데이비드 C. 뱅크스
교육감

스포츠라이트 비디오: Brooklyn College 투어 비디오를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말까지 모든 NYCPS 12학년 학생들은 CUNY에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상세한 관련 내용은 [PS + You 지난호](#)에 있습니다.



이 링크는 [에릭 애덤스 시장의 주간 비디오](#)입니다. 시장실로부터 직접 업데이트 내용을 받아 보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NYCPS 가정: 더이상 PS+You 이메일 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 취소](#)를 하십시오.